

이유 있는 등록금 카드 납부 불가 수수료 걸림돌… 대학 협상력 높여야

이진구 기자 jk6348@khu.ac.kr

등록금을 카드로 수납하지 않는 대학이 많아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돼왔다. 우리신문은 대학의 카드 수납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카드 납부 확대 방안을 알아봤다.

등록금 카드 수납 대학 31.2%
우리학교는 카드 납부 불가
대학가 저조한 현황에 비판 제기

금융감독원의 ‘국내 카드사 대학 등록금 카드 수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학기 등록금 카드 수납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공시 대상 394개교 중 123개교로 31.2%에 불과했다. 우리학교를 포함한 271개교는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받지 않았다. 카드 납부를 받고 있는 123개교 중에서도 수납 건수가 100건 미만인 대학이 48개교다. 또 카드사와 등록금 카드 수납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카드 수납 건수가 없는 대학도 50개교에 달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학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등의 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나 납부하면 장기간에 걸쳐 금액을 분산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대학생의 금융 위험 방지와 납부방식 선택권 보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대학은 적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9월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외 경제위기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돈이 한 번에 지출되는 등록금 납부는 대학생을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채무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카드 납부 장점은 학생 부담 완화
대학은 분할납부로 대체 중

카드업계는 등록금 카드 수납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을 꼽는다. 올해 8월 말 기준 등록금 수납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대학명		납부방법		납부수단	
		일시(명)	분할(명)	카드(명)	계좌이체(명)
카드 허용	서강대	10,346	215	339	10,222
	서울대	22,025	423	2,278	20,170
	서울시립대	8,731	181	834	8,078
	연세대	33,895	577	1,369	33,103
	중앙대	28,457	1,374	539	29,292
카드 허용 ×	고려대	31,369	944	-	32,313
	경희대	45,077	4,195		49,272
	한국외대	19,569	436		20,005
	한양대	20,959	1,379		22,338

※ 고려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카드 납부를 허용함.

서울 주요 대학별 등록금 납부방법 및 납부수단 관련 수치

1.44~1.66%대로, 이는 연매출액 10억 원에서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인 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8월 대학알리미가 집계한 우리학교 등록금 총액은 2,014억 1,578만 9,720 원으로, 이를 모두 카드로 납부했다 고 가정한다면 수수료율 1.5% 기준 약 30억 2,123만 6,846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 기획조정처 예산팀은 “카드 납부의 장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 납부를 시행하면 결국 카드사에게만 이익이다”며 “(학생과 학교)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4년 발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학등록금 납부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수료가 등록금 인상 요인이 돼 카드로 납부하지 않은

학생까지 수수료에 따른 등록금 인상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산팀은 “카드 납부 대신 분할납부(분납)를 시행 중”이라며 “분납과 카드 납부 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표했다. 우리학교는 이번 학기 8월 22일부터 최대 11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 기간이 대부분 6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분할 횟수는 유사하고 무이자라는 점은 동일하다. 또 예산팀은 “불필요한 비용을 아낀 만큼 학교에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시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고, 학교의 등록금 수입은 비과세라는 점 또한 카드 납부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오히려 카드 납부의 경우 연체 시 이자로 인한 부담이 크다. 서울캠 재무처 재무회계팀은 “납부의 편의성 측면

에서도 카드 납부와 가상계좌 납부 간 큰 차이가 없다”며 “카드 수납 시에는 가상계좌를 통한 방식과 달리 집계와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분납 때문에 카드 실적 저조
그러나 완벽 대체는 아직

이에 일각에서는 대학의 카드 수납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분납이 카드 납부를 문제없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학기 1만 7,640건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카드 수납 건수를 기록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는 실제로 분납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수납 건수가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방통대에 이어 카드 수납 건수 2위 기록은 건국대학교(건국대)의 2,380건으로, 수치가 확연히

줄어든다. 건국대는 9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4회에 걸쳐 분납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은 지난 8월 기준 대학별 등록금 납부 현황을 ▲납부방법에 따라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납부수단에 따라 카드와 계좌이체로 구분해 각 방법·수단별 이용학생 수를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학기 기준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분납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 납부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학기 서울대학교의 경우 분할납부 이용학생이 423명, 카드납부 이용학생이 2,278명이다. 이는 카드를 이용해 일시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최소 1,855명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액 분할만을 목적으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통한 분납만으로는 카드 납부를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대학교는 ‘학생의 등록금 납부 방식의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번 학기부터 카드 납부를 받기 시작하기도 했다.

수수료 부담 줄이고
납부 방식의 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취지 살려야

다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이 카드 납부를 본격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수수료 협상력이 제고돼야 한다. 대부분의 카드 납부 가능 대학은 소수의 카드사와 계약이 체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기 어려우며, 카드 사업자가 정한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예산팀이 카드 납부 도입 시 애로사항으로 밝힌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처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납부자인 학생이 수수료를 지불해 직접적으로 대학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이에 더해, 분납으로 대체할 수 없는 카드 납부의 장점이 명백해야 대학과 학생 모두 카드 납부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다. 학교와 계약된 카드사의 카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은 카드 납부의 장점인 납부방식 선택권과 편의성에도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금액 분할에 대한 수요는 분납으로 충족 가능한 상황에서, 위의 장점이 보장돼야 대학가 곳곳에 카드 납부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